

교통시설 민자유치에서 운영수입 보장은 철폐되어야



손의영

94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99년에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래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적지 않은 민간자본이 유치되어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인천공항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경기도 및 서울시 이용자에게 교통혼잡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우면산터널 등이 이미 운영되어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구간, 인천공항 철도 등이 공사 중에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시 송도지구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나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용인 경량전철사업 등이 곧 착공될 예정이고, 많은 대규모 교통시설사업들이 정부와 민간이 협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수도권내 도로 및 경량전철사업을 건설·운영할 것을 정부에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많은 대규모 사업 개수, 유입된 민간자본 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만을 보면, 정부는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통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정으로 교통시설이 적기에 확충되지 못하는 것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장기적인 파급효과 등 내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자유치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이미 겪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장래에 점차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정된 교통량을 토대로 하여 예측된 운영수입의 80% 혹은 90%를 민간에게 보장하는 현 제도에서 비롯된다. 민간이 건설하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교통시설에서 장래에 예측했던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은 크게 적은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예측했던 교통량을 토대로 한 운영수입의 80% 혹은 90%를 보장함에 따라, 실제 교통량이 적은 데 따른 엄청난 손실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으로 정부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만 하더라도 인천공항고속도로 1천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90억원, 우면산터널 200억원 등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많은 고속도로나 철도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90%, 일부 8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예측 교통량 또한 실제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면 왜 장래 교통량을 이처럼 과다하게 추정하고 있는가? 교통량 추정은 물론 교통전문가가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래 30년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기도 하거니와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과다하게 교통량을 추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교통량이 많을수록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입이 많아 손실이 적음으로써, 마치 건설 및 운영 중에 정부가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한편 거의가 건설회사인 민간사업자 측 또한 아무리 과다하게 교통량을 추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하여 운영수입의 90% 혹은 80%는 보장받을 수 있음으로써 손실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적고, 또한 무엇보다 사업을 성사시켜 건설 물량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우선적인 목표이며 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규모 급등 등 장기적인 폐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까지 민간자본 유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행 민자유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부가 장래 교통량의 일정 비율을 토대로 최소 운영수입금을 보장하는 것을 당장 철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교통량을 적정하게 예측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장래의 정부 보조금 지급도 없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교통량의 과다 예측으로 불필요한 사업까지 진행되는 폐단도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만 적지 않은 민간사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에서 상당 부분 손을 뗄 것이나, 이는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